

# 상교우서 上教友書

2025년 5월호(통권 120호)

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일 2025.4.20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망월동) 전화 031 792 8541 홈페이지 <http://www.casky.or.kr>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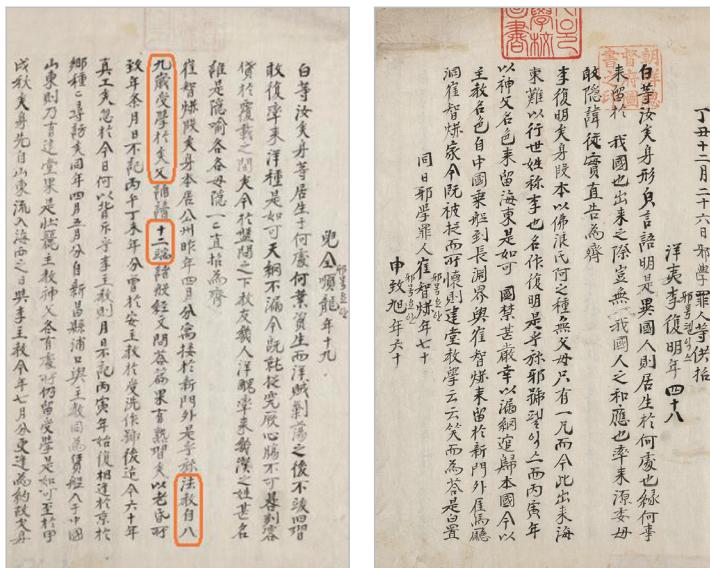
## 관변 측 기록에서 확인되는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 관련 내용 소개 (1)

### - 신자들의 심문 진술에 나오는 ‘십이단’ 내용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필자는 ‘십이단(주요 기도)의 변천 과정과 간행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3월 8일(토)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 그동안 정리했던 ‘십이단’에 대한 서지학적 기초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하고 비교·분석해서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일일이 연구논문에서는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호에 이어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십이단’ 관련 최지혁의 진술 (『우포청등록』 27권 1a~1b면) [오른쪽부터]

이번 호에는 관변 측 사료[『좌포청등록』(奎15145-v.1-18)·『우포청등록』(奎15144-v.1-30)]에 기록된 신자들의 심문 진술에서 확인되는 ‘십이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좌·우포청등록 기록 중 1868년부터 1879년까지 34명의 신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십이단’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 1878년 옥중 순교자 최지혁 요한 - 8~9세 때에 부친에게 십이단을 배우다

1877년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델 주교는 11년 만에 조선에 재입국하여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준비했지만, 그해 12월(음력)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리델 주교는 1878년 6월, 중국으로 추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같이 잡혀간 최지혁(崔智讎) 부부 등 신자들은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증거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정축(丁丑, 1877년) 12월 26일[양력 1878년 1월 28일] 우포도청 진술에서 최지혁 요한[70세, 1808년생]은 자신이 8,9세부터[1815~1816년] 부친에게 천주교[法敎]를 배웠고, 십이단과 여러 기도문, [교리]문답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法敎自八九歲 受學於矣父 誦讀十二端 諸般經文 問答篇 果有熟習矣] 함께 불잡혔던 신치욱(申致旭) 요한[60세, 1818년생]도 10년[10세로 추정, 1827년경]에 부친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십이단과 [교리]문답을 공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十年受學於矣父 講習十二端及問答篇]

최지혁과 신치욱의 진술[『右捕廳贍錄』 27권, 1b-2a면]을 통해 ‘십이단’이 1810~1820년대에 신자들 사이에 유포되었고, 천주교에 입교할 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포청등록에도 같은 내용의 최지혁·신치욱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左捕廳贍錄』 17권, 38b-39b면]

같은 날 심문에서 최지혁의 아내 이아기[李阿只] 루치아[56세, 1822년생]는 남편과 같이 ‘십이단’을 외우고 익혔으며 5년 전[1872년경]에 대세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同誦習十二端 五年前代洗]. 최지혁 부부와 같이 잡혀갔던 박영의(朴永儀) 이이발(엘리사벳?)[55세, 1823년생]은 최지혁과 같은 집에 사는데 십이단과 문답을 배운 지 10년이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與崔智讎 同室居生 誦習十二端 問答篇 以至十年矣]. 이를 통해 이아기와 박영의가 최지혁에게 십이단을 배우고 천주교에 입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右捕廳贍錄』 27권, 3a면] 좌포청등록에는 이아기의 진술만 실려 있는데 남편 최지혁과 같이 ‘십이단’을 공부했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左捕廳贍錄』 17권, 40b-41a면]

## 1874년 우포도청 심문에서 배교를 거부한 박천임과 유아기 - 정의배 회장에게 십이단을 배우다

갑술(甲戌, 1874년) 2월 25일[양력 4월 11일] 우포도청 진술에서 박천임(朴千任) 루치아[76세, 1799년생]와 유아기[柳阿只] 서실이(체칠리아?)[68세, 1807년생]는 형제결의를 맺어 함께 살았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없고 오로지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여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패, 십자고상, 천주교서적, 묵주 등을 바쳤습니다.[『右捕廳贍錄』 25권, 32a~32b면] 위 기록을 통해 이들이 순교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굳건한 신앙을 증거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천임은 30세 때[1828년경]에 이미 죽은[1866년 순교] 정의배(丁義培) 회장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천주경, 성모경, 성호경, 십이단, 문답을 공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三十歲時 聖敎受學於已死之會長丁義培處 天主經·聖母經·聖號經·十二端·問答 誦習]. 유아기는 40세 때[1846년경] 정의배 회장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천주경, 성모경, 성호경, 십이단, 문답을 공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四十歲時 聖敎受學於會長丁義培處 天主經·聖母經·聖號經·十二端·問答 誦習]. 두 여성의 천주교에 입교한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정의배 회장에게 십이단 등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배의 전교 활동이 1820년대 후반부터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의배 마르코 회장 (탁희성 화백 그림 일부)



브르트니에르 신부[위키백과]

## 1868년 우포도청 심문에서 배교한 박계룡과 박성룡 부자 - 가족과 신자에게 천주교를 배우다

무진(戊辰, 1868년) 2월 10일[양력 3월 3일] 우포도청 진술에서 박계룡(朴桂龍) 베드로[44세, 1825년생]는 훈련도감의 서자지[書字的, 문서 기록 담당 군인]였는데, 6세 때[1830년경] 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외숙 허옥(許昱)에게 대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 외숙부를 통해 십계, 천주경, 덕송경(德誦經)을 배웠고, 9세 때[1833년] 외숙모와 2세 된 사촌여동생과 같이 가서 노(盧, 모방) 신부를 만났는데, 15세 때[1839년] 이미 배교했다고 진술했습니다.[『右捕廳贍錄』23권, 32a면] 모방 신부가 1836년에 입국했기 때문에 1833년에 만났다는 박계룡의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박계룡의 아들인 박성경(朴景成) 요한[18세, 1851년생]은 죽은 고모에게 재덕송(在德誦), 식전축(食前祝)과 식후축(食後祝)[식사 전후 기도]를 배우고, 견진[문답]과 십이단, 천주경, 성호경은 이미 죽은 최만성(崔萬成)에게 배웠으며[堅陳與十二端·天主經·聖號經四篇 又學於已死之崔萬成處], 정[의배] 생원 집에서 백(白, 브르트니에르) 신부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조부의 질책에 따라 배교했다고 했습니다.[『右捕廳贍錄』23권, 32a~32b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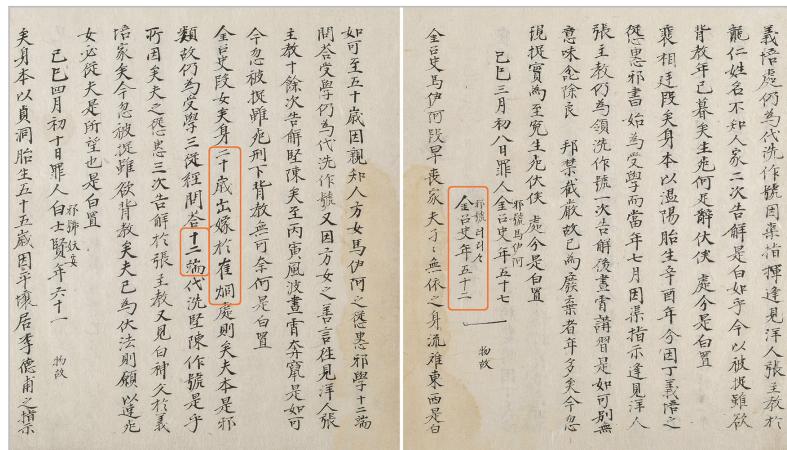
박계룡의 진술에는 ‘십이단’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 박성경의 진술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십이단’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십계와 천주경이 ‘십이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박계룡이 ‘십이단’을 배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1868년 좌포도청 심문에서 죽은[物故] 이 엘리사벳 - 모친에게 배우고 부친에게 대세를 받다

무진(戊辰, 1868년) 6월 19일[양력 8월 7일] 좌포도청 심문에서 3명의 신자가 진술했고, 배교하라는 지시에 저항하다가 물고(物故, 사고사)했습니다. 아마도 매를 맞는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신자 중 김 데레사[60세, 1809년생]와 김종손(金宗孫) 요셉[34세, 1835년생]은 정의배 회장에게 배워 1848년과 1862년에 천주교에 입교했으며, ‘십이단’에 대한 내용은 진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신자인 이 사발(엘리사벳?)[50세, 1819년생]은 앞의 2명과 달리 12세 때[1830년]에 성교십이단(聖教十二端)과 삼문답(三問答, 세례·고해·성체성사 문답)을 이미 죽은 모친에게 처음 배웠고, 그때 부친[矣父膝下]에게 대세를 받고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정의배의 인도로 장(張, 베르뇌) 주교를 만나 4차례에 걸쳐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左捕廳贍錄』14권, 113a~114a면]

1801년부터 1834년까지 조선에 사제가 없었던 시기에도 신자들은 가족이나 다른 신자들을 통해 십이단과 문답을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이단’ 관련 김 데레사(최형의 아내)의 진술(『좌포청등록』 14권 138b~139a) [오른쪽부터]

## 1869년 좌포도청 심문에서 죽은[物故] 김 데레사 - 남편 최형(崔炯)을 통해 십이단을 배우다

기사(己巳, 1869년) 3월 8일[양력 4월 19일] 좌포도청 심문 중에 김 마리아[57세, 1813년생]와 김 데레사[52세, 1818년생]가 물고(物故)했습니다. 김 마리아는 과부로 지내다가 50세 때[1862년] 방 마리아[方女馬伊阿]의 권유로 십이단과 문답을 배워 대세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데레사는 20세 때[1837년] 최형과 혼인했는데 최형이 천주교 신자였으므로 삼종경과 문답, 십이단을 남편에게 배워[二十歲出嫁於崔炯處 則矣夫本是邪類 故仍爲受學三從經·問答·十二端] 대세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데레사는 남편이 이미 처형[伏法]되었으므로 빨리 죽기만을 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左捕廳謄錄』 14권, 138b-139a면] 이러한 심문 과정에서 매를 맞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 교회 측 기록인 『치명일기』 318번과 『병인치명사적』 5권 41~42쪽,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4번에는 최형의 아내 ‘여 데레사’[40여 세]가 사위 이경종 가롤로와 함께 잡혀 포도청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체포 시기는 1869년 봄, 또는 1868년 12월(정리번호 144번)로 기록됨] 위의 좌포도청 기록과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6호, 3월 31일 간행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